

자료 소개: 석양루(夕陽樓)라는 공간

김하라*

1. 석양루(夕陽樓)에 대하여
2. 『흙영』 소재 석양루 관련 기록의 번역문 및 원문
3. 기타 기록에 보이는 석양루 관련 언급

1. 석양루(夕陽樓)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18세기 서울의 사인(士人) 유만주(兪晩柱, 1755~1788)가 쓴 일기 『흙영』(欽莢)을 바탕으로, 21세기 현재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석양루(夕陽樓)라는 서울의 한 공간을 떠올려 보고자 한다. 유만주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짧은 생애를 마친 사람으로 그 곳곳을 거닐며 자신의 눈에 들어온 서울의 풍경을 일기에 묘사하곤 했는데 그 가운데 석양루를 유독 여러 번 찾아가고 그 경험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흙영』에는 유만주의 생애 말년에 해당하는 1783년과 1785년, 1786년, 1787년의 일기 가운데 석양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그곳은 빈 집이고, 몹시 화려했던 건물들이 해마다 퇴락해 가고 있는 중이며, 주인 없는 정원에는 꽃과 나무만 번성해 있는 모습이었다.

석양루는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滯, 1622~1658)의 저택 가운데 있던 한 누각의 이름으로 그 저택 자체를 대유하기도 한다. 인평대군의 문집인 『송계집』(松溪集)의 발문(跋文)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효종(孝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우인 인평대군과 집을 나란히 하여 짓고 각각 ‘조양루’

* 서울대학교 강사.

(朝陽樓)와 ‘석양루’(夕陽樓)라 부르며 서로 우에 있게 지냈다고 한 바¹⁾ 이 집이 지어진 것은 효종이 즉위한 1649년 이전의 어느 시점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종(高宗) 때의 기록 중에, 석양루를 포함한 인평대군의 사저가 대단히 화려한 제택(第宅)으로 유명했는데 그 위치는 타락산(駝駱山) 아래 건덕방(建德坊 : 현재 종로구 이화동에 해당)에 해당하며 당시에는 이미 장생전(長生殿)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²⁾ 17세기 중엽에 왕족을 위해 지어졌던 화려한 저택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왕실의 관곽(棺槨)을 관리한다는 어찌 보면 음산한 분위기를 품은 장생전이라는 관청으로 바뀌게 되기까지 어떤 시간을 겪었을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은 석양루의 내력과 관련한 사소한 궁금증과, 이런 장소를 자주 찾곤 했던 유만주의 내면세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의 2절에서는 각각의 연도별로 『흙영』 소재의 석양루 관련 기록의 번역문과 원문을 제시하고 자료에서 발견되는 바를 간단히 언급할 것이며, 3절에서는 2절에서 발견된 사항들과 관련하여 『흙영』 외의 자료에서 보이는 석양루에 대한 언급을 추가할 것이다.

2. 『흙영』 소재 석양루 관련 기록의 번역문 및 원문

1) 1783년의 기록

1783년 윤3월 3일.

아침에 개장국을 먹고 흥인문(興仁門)으로 나가 조금씩 푸르러지는 들판의 빛을 보다가 발두렁 사이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갔다. 때론 물가에 앉기도 했고, 때론 먼 데를 보기도 했다. 개울물이 잔잔히 흐르는 곳에 이르러 냇물에 술잔 띄우는 유희를 했다. 영도사(永導寺)를 찾아서, 동구(洞口)를 따라 들어갔

1) “是以我孝宗大王因心則友，填笈迭唱。龍潛舊邸，有樓曰朝陽，與公之夕陽樓，翼然兩閣東西相對，懸鈴其間，往復詩文。”

2)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성부(漢城府) 조.

다. 절은 사인동(舍人洞)에 있는데 절을 설치한 것은 인명원(仁明園)을 위해서다. 절 뒤의 수각(水閣)에 올랐다. 개울물이 바위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졸졸 소리를 냈다. 누정 아래에는 앓을 만한 너럭바위가 있었고 비취빛 나무들이 나란히 서 있었으며 푸른 풀숲이 어리비치었다. 누정 뒤의 깊은 곳에는 키 큰 소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초록 잔디가 깔려 있었다. 깊숙한 개울물 사이로 봄꽃 예닐곱 포기가 드문드문 붙어 있었다. 개울을 건너 작은 언덕에 오르니 모정(茅亭)의 옛터가 있었다. 나뭇잎 사이로 남한산성의 성가퀴가 희미하게 마주보였고 안계(眼界)가 조금 트이는 듯했다. 동성(東城) 교외(郊外)의 원정(園庭)은 한둘이 아니지만 여기가 제일가는 곳이다. 평탄히 펼쳐져 있고 안온하고 아늑하며 탁 트였으면서도 그윽한 맛이 있는 반면 부잡스럽고 소루하며 거칠고 탁한 단점은 없으니 몹시도 아름다운 풍취가 있고 참으로 살기에 좋은 곳이라 하겠다.

성문을 따라 들어가 길을 에둘러 가서 석양루(夕陽樓)에 이르렀다.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옛 저택이다. 영과정(映波亭)으로부터 어떤 문 하나를 지나가서 바깥의 별당을 보고 또 문 하나를 나와서 연못가에 앉았다가 돌아와 쇠춘문(鎖春門)을 따라 들어가서 안쪽 별당을 보고 정원의 문으로 나와서 꽃이 핀 정원을 보았다. 정원을 두른 담에는 무지개 모양의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이 잠겨 있어서 문틈으로 안쪽의 정원을 바라보았더니 온갖 꽃들이 온통 붉게 피어 있고 그 주변을 나무들이 푸르게 둘러싸고 있었다. 그 가운데 그림으로 장식된 굵은 난간이 있는 집 하나가 불쑥 나타나 있으니 바로 석양루다. 굳게 잠겨 있어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신선의 거처와 비슷하다. 층층의 용마루가 있는 커다란 집이 좌우로 늘어서 있다.

정원 가운데의 높은 곳에는 팔괘정(八卦亭)의 터가 있는데 주춧돌은 아직 남았으니 전부 8면에 2층이다. 팔괘정에서 내려와 몇십 걸음 가니 개울 하나가 있고 바윗돌이 울룩쭈룩했다. 개울가에서 보니 또 누각의 터가 있었다. 개울물이 시작되는 곳까지 한 번 가 보기로 했다. 조금 깊이 들어가니 옥청동(玉淸洞) 세 글자를 새긴 석벽과 마주쳤다. 아쉽게도 물은 말라 있었다. 정원 뒤의 제일 높은 곳에 오르니 눈앞이 몹시도 탁 트여 성궐과 누대와 저자와 냇물과 도랑의 광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영과정은 정자(丁字) 모양으로 네모난 연못과 불쭉 이어져 있다. 돌을 쌓아 누대(樓臺)를 만들었으니 허형루(虛迥樓)와 능초루(凌超樓)다. 영과정 곁에는 심양(瀋陽)의 벽돌로 짙은 담을 쌓아 두었는데 벽돌마다 난초꽃을 아로새겨 차례대로 배치해 두었으며 벽돌 위에 또 벽돌을 쌓아 두었는데 코끼리와 거북 무늬가 있으니 극히 정교하고 치밀하다. 그리고 원정(園庭)의 정자 주변에는 규룡(虯龍) 모양의 소나무며 오래된 측백나무가 기이함을 다투며 삐죽삐죽 솟아 있는데, 붉은 봄꽃과 초록 새싹들이 어리비치며 그 나무들을 치장해주고 도와주니, 또한 그 제도에 맞다 하겠다. 이곳은 넓고 탁 트이고 장대하고 화려한 것이 마땅히 한성에서 으뜸이리라.

나는 10년 전에 이 영과정을 노닐고 시를 지은 적이 있다. 지금 보니 꽃이 며 바위는 황폐해지고 난간은 기울고 연못은 메워져 있어 옛 모습이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든다.

배교(陪校) 편에 그믐밤과 초하루 아침 두 번에 걸쳐 아버지가 관아에서 보내신 편지를 받았다. 삼(蔘)의 값 800문이 먼저 왔다. 창린(蒼隣)에게 편지와 함께 숭정(崇禎) 시기에 해당하는 『명사강목』(明史綱目) 3권을 보냈다.

○ 혹 말하길 석양루의 안쪽 정원에는 술잔을 띄우게끔 굽어져 있는 개울이 있어서 안쪽 정원의 물굽이에서 술잔을 띄우면 바깥 정원의 물굽이까지 흘러와서 그것을 가져다 마실 수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다.

朝食狗羹³⁾ 出興仁門, 觀野色微青. 從阡陌間屈折行, 或臨水或望遠, 到溪水平流處, 爲流觴之戲. 尋永導寺, 從洞口入, 寺在舍人洞. 置寺者爲仁明園也. 登寺後水閣, 澗水從石上流下, 淙琤有聲. 亭下有盤石可坐, 翠木離立, 叢青掩映. 亭後深處, 長松櫛立, 綠莎下布, 幽澗中疏着時花六七本. 越澗而登小阜, 有茅亭古址. 從樹葉間微對南漢城堞, 眼界稍闊. 東城外郊園非一二, 而此當爲第一區. 平鋪穩藉, 開豁幽篁, 無浮疏麤濁之短, 極有佳趣大宜陽居也. 從城門入, 迤至夕陽樓, 獐坪大君故第也. 自映波亭, 歷一門見外別堂, 又出一門臨蓮沼, 還從鎖春門, 望見內別堂, 出園門觀花園, 園牆有虹霓小門, 門鎖從門隙望見內園, 萬花叢紅, 青林匝映, 一曲畫欄涌現其中者, 夕陽樓也. 封鎖虛靜, 類列仙之居. 層薨大

3) 食狗羹 : 지본에는 이 세 글자에 줄을 그어 지워 놓았다.

屋, 羅絡左右, 園中高處, 有八卦亭址, 甃石猶存, 皆八面二層, 從亭而下, 行數十步, 有潤岩石磊砢, 臨潤又有閣址, 試窮潤水之源, 稍深遇石壁刻‘玉清洞’三字, 恨水涸也. 登園後最高處, 眼界極通曠盡挹城闕樓臺市肆川渠之觀, 映波亭爲丁字形, 斗入方池, 累石爲臺, 虛迥凌超. 亭旁短垣築以瀋陽甃, 甃磚皆雕印蘭花, 列次排比, 甃上又築甃象龜甲紋, 極其巧緻, 而園庭臺榭, 虬松古柏, 參錯競奇, 時紅嫩綠掩映粧護, 又其制度也. 宏敞壯麗, 當爲漢城之甲. 余曾於十年前遊此亭賦詩, 今見花石荒圯欄沼廢歛有高傾曲平之感矣. 承陪校使晦夜朔朝二道衙書, 蓼直先來八百文. 蒼隣書送『明網』崇禎三卷. ○或言, 夕陽內庭, 舊有流觴曲水, 自內庭之曲流觴浮至外庭之曲, 以供取飲, 今未知尚在也.

『흙영』에서 석양루를 직접 언급한 예가 보이는 것은 위에 제시한 1783년 윤3월 3일부터다. 이날 유만주는 아침밥을 먹고 혼자서 흥인문(興仁門 : 동대문)을 나섰다. 이후 그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 사인동(舍人洞 : 성북구 안암동 부근)의 영도사(永導寺)를 거치고 다시 근방의 동쪽 성곽을 빙 돌아서 석양루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영도사와 인접해 있었던 인명원(仁明園)은 홍국영(洪國榮, 1748~1781)의 여동생으로 잘 알려진 정조의 후궁 원빈(元嬪) 홍씨(洪氏, 1766~1779)의 묘다. 원래는 지금의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자리에 조성되었으나 홍국영 몰락 이후 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으로 옮겨졌고, 현재 고려대 경내에 인명원 터가 남아 있어 ‘애기능’이라 불리우고 있다 한다. 인명원을 위해 마련된 사찰인 영도사는 현재 개운사(開運寺)로 이름이 바뀌어 그 자리에 남아 있다.

흥인문에서 영도사까지는 약 3km의 거리이고, 영도사에서 과거 석양루가 있었던 이화동까지는 4km정도 된다. 흥인문에서 이화동까지가 1km쯤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날 7km를 빙 돌아 이동한 유만주의 행보는 서울 동쪽 성곽 부근의 봄 경치를 완상하기 위한 산책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유만주가 방문한 석양루는 여러 채의 건물로 구성된 대저택이고, 아름다운 정원에 봄꽃이 한창 피어 있던 것으로 묘사된다. 다만 이 집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고, 담장으로 구획된 정원과 건물의 일부에는 자물쇠

가 채워져 있었다. 이 정원에 있던 문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문을 잠그어 봄을 가둬둔다’는 뜻의 쇠춘문(鎖春門)은, 버려져 텅 빈 채 퇴락해 가며 봄꽃과 나무들만 번성해 있는 석양루의 시간이 멈춘 듯한 정경과 무척 잘 어울리는 명칭으로 특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위의 글은 석양루가 지어진 지 한 세기 이상이 지난 18세기 후반에 이 공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지 묘사적 차원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버려진 빈 집에 홀로 들어가 잠긴 문틈으로 그 정원을 엿보고 있는 관찰자로서 유만주의 형상에도 눈이 간다.

2) 1785년의 기록

1785년 4월 14일.

맑은 아침에 노닐러 나간다. 먼저 청문(靑門: 동대문)의 버들빛을 완상했다. 하늘은 푸르고 꽃들은 환히 피고 바람은 풍성하고 햇빛은 서늘하다. 긴 독 위로 천천히 나귀를 모니 무척이나 맘에 맞다. 상평통보 냇을 주고 점사(店舍)에서 나귀를 먹이게 했다. 다시 수문(水門)을 따라 올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한가로이 걸었다. 푸른 가로수 사이로 피리 소리가 들려 왔다. 남쪽에도 또 수문 두 칸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 오간수문(五間水門)과 합하면 일곱 칸이 된다. 나귀 먹이 다 주기를 기다려 동촌(東村)으로 향했다. 지나가다 석양루(夕陽樓)의 흐드러진 꽃들을 바라봤다. 붉은 꽃과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누대에 어리비치고 있었다. 장경교(長慶橋)를 지나 경모궁(景慕宮) 앞의 새로 돋은 버들을 보니 여리고 고운 가지가 가벼이 일렁이고 있는데 가다가다 푸르게 흔들리는 것이 완연히 장저 소년(張渚少年)이다. 이윽고 연못 가운데에 만들어진 섬을 완상했다. 연약한 푸른 잎과 드문드문 핀 붉은 꽃들이 점철된 풍경이었다. 연못 주변을 새잎 돋은 버들이 초록빛으로 두르고 있고 개나리는 노랑계 에워싸고 있었다.

清朝出遊, 先賞靑門柳色. 天靑花明, 風盛日涼. 長堤緩驅, 甚是適意. 授通寶四, 俾飼衛于店. 復從水門上, 閑行南北, 翠樾中聽羌笛, 始見南又有水門, 二間

合五爲七待衛還向東村, 過望夕陽樓繁花, 紅深綠茂, 照映樓臺. 從長慶橋, 觀景慕宮前新柳, 婉弱輕揚, 行行青拂, 宛是張渚少年也. 仍賞池島, 弱青稀紅, 點綴爲景, 池岸嫩柳環綠, 辛夷匝黃.

1785년 4월 26일.

북사(北寺)를 찾아가려는 길에 북사가 이미 허물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다시 개울물을 따라 내려왔다. 해가 기울 무렵 갑자기 그늘이 지더니 비가 올 기색이었다. 다리를 건너고 꽃길을 지나와 혜화문(惠化門)에 이르렀다. 해는 벌써 반 넘게 기울었다. 혜화문의 성루(城樓)에 올라 저녁 햇빛과 안개 속의 꽃들을 완상했다. 성의 왼쪽으로 가니 푸른 언덕의 깨끗한 초록빛 풀들이 사랑스러웠다. 어떤 산기슭에 이르니 소반처럼 평평하고 넓었는데 거기에 올라 송동(宋洞)의 꽃을 건너다보았다. 다시 성의 길을 따라 내려왔다가 경침(景寢) 앞에서 버들빛을 보았다. 그 너머 석양루를 쳐다보니 흐드러진 붉은 꽃은 이미 다 졌다.

將尋北寺, 途聞寺已毀. 遂更沿溪而下, 日旰忽陰有雨意, 度橋穿花, 至惠化門, 日已過旰矣. 登惠化城樓, 賞夕陽煙花, 從城而左, 翠阜綠淨可愛. 行到一麓, 平廣如盤, 臨之越望宋洞花. 復從城而下路, 從景寢之前觀柳色, 越瞻夕陽樓, 繁紅已盡矣.

1785년의 기록에는 석양루를 방문하지는 않고, 열이틀 사이에 두 차례 지나가며 본 것으로 나타난다. 역시 서울 동쪽 성곽 부근을 산책하며 봄 경치를 완상하는 중이었다. 4월 14일에는 나귀를 타고 흥인문을 지나 청계천을 따라서 지금의 연건동에 있었던 경모궁까지 가는 2km 남짓 되는 길에 석양루에 흐드러진 붉은 꽃들을 봤다고 했고, 4월 25일에는 성북동에 북사 꽃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석양루를 지나오며 그 꽃들이 다 진 것을 봤다고 했다. 이곳을 찾지는 않았지만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1783년의 기록에서와는 달리 도보로 다니지 않고 나귀를 타고 노닐

고 있는 점은 이 때 유만주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비교적 윤택했음을 보여 준다.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 집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며 위에 언급된 나귀는 팔려나가고 만다.

3) 1786년의 기록

1786년 3월 16일.

성균관 대사성 민중현(閔鍾顯)이 중춘(仲春)의 획시(畫試)를 실시했다. ○잠깐 정당(正堂 : 명륜당)에서 쉬었다가 각(閣 : 육일각)을 지나 천(關 : 비천당)을 거닐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하고 이 당(堂)에 돌아와 앉았고, 하나의 이름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이 뜰을 마주했던 것이다. 지난 4년이 이처럼 우습다. 그렇지만 시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불러대며 패를 지으면 격을 잃게 되니 혼자서 고요히 마음을 안정시킬 일이다. 건물에 들어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와 성균관에서 주는 아침밥을 먹었다. 마침내 혜화문(惠化門)을 향했다. 길에서 봄꽃을 꺾고 지나가는 어떤 부랑자와 마주쳤다. 그에게 대뜸 ‘어디서 난 꽃이냐’하고 물으니, ‘어떤 변두리에 핀 꽃’이라 대답한다. 연못가를 거닐며 읊조리는 굴원(屈原)의 모습이 생각나니, 옛사람의 마음과 모습을 유독 온전히 상상할 수 있다. 동쪽 성문의 누각에 올라 아름다운 푸른 풀들이 돋은 언덕에 잠깐 앉았다.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을 펼쳐보다가 문득 제정신을 놓쳤다. 한참 머물다 내려와 광례교(廣禮橋)를 지나고 응란교(凝鑾橋)를 지나 경모궁 앞 삼거리에서 버드나무를 보았다. 버들빛은 아직 일렀다. 이 때 해는 아직도 넘어가려면 멀었기에 다시 석양루(夕陽樓)를 찾아갔다. 동쪽 담장을 빙 돌아 뜰에 난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파정(映波亭)에 올랐다. 영파정의 용마루 기와와 섬돌은 전에 비해 더욱 심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못 볼 지경에 이를 것이다. 우연히 시 한 수를 떠올렸다.

曲池層榭窈而寬. 굽은 연못 층층 누각 너르고도 아늑한데

高柳秀松疊又單. 높은 버들 빼어난 소나무 따로 또 같이 있네.
 今日風煙無限好, 안개 낀 이 풍경이 한없이 좋아
 映波亭上獨憑欄. 영파정에 올라 난간에 홀로 기대섰네.

드디어 쪽문으로 나와 바깥쪽 별당에 들어갔다. 규룡(虯龍) 모양의 소나무와 오래 묵은 측백나무, 층층이 놓인 섬돌과 기이한 바위는 예전 그대로였다. 한참을 배회하다가 다시 쪽문을 나와 서쪽으로 쇄춘문(鎖春門)에 가서 안쪽 별당을 바라봤다. 돌아와 영과정 뒤 평평한 뜰의 새로 돋은 잔디 위에 앉아 정원의 안쪽을 바라봤다. 봄꽃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어 붉은 꽃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영과정 난간에 기대어 단청의 색깔을 보니 극히 오묘하여 관공서의 높다란 건물들에 어지럽게 칠해진 그것과는 달랐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나와서는, 동쪽 성곽의 버들빛을 돌아보았다. 저녁에 돌아와 청교(靑郊: 임로)가 들췌아우의 참척(慘戚)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계동(桂洞) 편지와 돈 100문을 주었다. 마침 사종(史從: 유담주)을 만나 홍당(紅堂: 권상신)의 잔치에 가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야희(野戲)를 펼치고 상차림이며 꽃장식을 하는 데 총 만여 문을 썼다고 한다. 갈 수 없었던 것은 과연 귀천과 영고(榮枯)의 차이가 있어서였으리라.

乍憩于正, 從閣而過, 迨遙于闈. 思先其間不增一級了, 還坐此堂, 第其間不成一號了, 還臨此庭, 其間四歲也, 呵如是也. 而行走遍場, 聯招多衆, 則便失格, 獨也靜帖. 交卷于宇, 出餉朝元泮饋, 遂向惠化門, 道逢一光棍, 插時花去者. 第問之‘花何處?’, 得答云: ‘某郊花也.’ 思澤畔行吟, 另可想像, 古人一副神形. 上城樓或坐芳臯, 演五種問, 忽剋元常. 頗久而下, 從廣禮橋, 歷凝鑾橋, 于景寢丁字路上賞柳, 柳色尙早. 時日尙遠晏, 更尋夕陽樓, 迤邐從東垣小園門而入, 登映波亭, 亭葺砌石, 視前益毀圮, 若稍過數年, 則當不堪玩矣. 偶思一詩, ‘曲池層樹窈而寬, 高柳秀松疊又單. 今日風煙無限好, 映波亭上獨憑欄.’ 遂從角門, 入外別堂, 虯松古柏, 層砌怪石, 猶舊觀也. 盤桓久之, 復從角門, 出西之鎖春門, 望內別堂, 還坐亭後平園嫩莎之上, 望見園裏, 時花稍開, 紅暈入目. 復倚亭欄, 見所施丹雘, 極有妙思, 與公館峻宇胡亂施彩者異焉. 既夕而出, 顧望東城柳色. 暮還, 聞靑有乙憾, 已副桂書百文. 值史間與紅堂之讌, 陳野戲設饌花, 計費萬餘云云. 不可往,

果有貴賤榮枯之分而然與.

이 일기에서 봄날의 석양루를 배회하는 유만주의 내면풍경은 퇴락해 가는 폐가의 풍경과 조용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날 유만주는 아침 일찍부터 석양루 근방의 성균관에서 실시한 획시(畫試)를 보았다. 이 시험은 그 무렵 유만주가 봤던 대부분의 시험과 마찬가지로, 별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본 것이었는데, 그는 그런 자신에 대해 ‘조금의 향상도 없이 성균관을 오가고 의미 없는 시험에 응시하며 삶을 보내고 있다’ 하여 유독 냉소와 자조의 태도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장을 나온 그는 딱히 갈 곳이 없어 봄 경치라도 볼까 싶어 성북동을 향해 혜화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듯하다. 이 길에서 어떤 부랑자를 만났는데, 봄꽃을 꺾은 그는 어딘가 꺾핀 곳으로부터 온 이로 실은 유만주와 마찬가지로 하릴없는 인간이다. 유만주는 봄꽃 꺾은 곳이 어딘지 알아그리로 가고 싶어서 말을 건네다 그 사람에게서 세상의 가장자리인 물가를 떠돌며 슬픔의 노래를 읊조리는 굴원의 형상을 떠올린다.

아직 버드나무도 푸르지 않고 꽃이 피기엔 이른 계절이라 동쪽 성곽의 풀이 돋은 언덕에 한참 앉아 공상을 해 보지만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흐르고, 이에 그가 가 보기로 한 곳이 또 석양루다. 나무며 바위와 같은 자연물들은 그대로지만 건물은 한 해가 다르게 허물어져 가고 있다. 유만주는 다시 몇 년이 지난 후의 시점을 상상하다 소멸의 전망을 본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밖에서 어정거리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유만주에게 들려온 소식은 절친한 동갑내기 벗 임로(任魯, 1755~1828)가 아우를 잃었다는 부고이다. 또한 한때 어울려 다녔으나 지금은 소원해진 권상신(權常愼, 1759~1825)의 소식도 전해 듣는다. 부유한 그의 집에서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졌다는데, 자신이 거기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날의 일기에 일관되게 나타난바 어디 갈 곳 없어 혼자서 성균관 근방을 배회하는 만년 거자(擧子)로서의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게 된다.

1786년 4월 5일.

동촌(東村)에 새로 만든 연못을 경유하여 이고(二顧 : 김이홍)와 함께 경침(景寢)의 버드나무를 보았다. 길을 돌아가 석양루를 보기로 하고 큰 석호수(石護樹)를 지나서 빙 돌아 영파정에 올라갔다. 영파정을 에워싼 녹음이 지난날 노닐었을 때보다 나았다. 이런 논의를 했다.

“이런 정원과 주택은 중국에 갔다 뒤도 웅색하다 하지 않을 것이네.”

쇄춘문 밖의 층층 누대에 올라 석양루를 바라봤다. 석양루는 바로 연이어 진 큰 집채들 가운데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층층누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들으니 지금의 동지(東池)는 역적인 종실 사람 정(楨)과 남(柵)이 예전에 살았던 터라고 한다. 아마도 조양루(朝陽樓)와 석양루 두 누각을 가까이 이어 놓고 왕실의 지친(至親)이 내려와 살도록 바깥 별당을 만들어둔 것이리라. 이런 논의를 했다.

“여기의 정원과 주택의 제도는 순전히 대궐을 본뜬 것이니 남의 신하된 자의 일상적 거처가 될 만한 것이 아니라네. 당시 아들딸이 수두룩하고 보육이며 비단이 집안에 가득하여 광휘를 발했을 테니 그때 얼마나 변화했을지 상상이 되네.”

이때 집 주변에 큰 배나무가 나란히 서서 높다랗게 가지를 뻗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어 꽃이 지니 눈송이가 점점이 날리는 듯했다. 대단히 그윽하고 탁 트인 느낌이 들었는데 시골 농장의 조그만 집에서 꽃이 흩날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파정 뒤를 지나가서, 이고와 함께 정원에 들어갔다. 봄꽃은 이미 다 지고 죄다 푸른 숲을 이루었다. 잠깐 팔면정(八面亭) 터의 돌 위에 앉았다. 옥청동은 물이 없어서 보지 않았다. 저물녘에 돌아왔다.

絲東新池，偕觀景寢之柳，訂迤賞夕陽樓，過石護大樹，迤上映波亭，環亭綠陰，勝於前日之遊。議，“如是園坵，雖置在中州，亦當不見處以襄陽也。”登鎖春門外層臺，以望夕陽樓，樓乃連延大屋子中南邊層閣是云。聞今之東池，乃逆宗植柵舊墟也。蓋近聯朝夕二陽，爲王室至親下坐外別堂。議園坵制度，純擬禁內非復人臣常居，當時子女玉帛充滿光輝，可想其甚繁華也。時環堂大梨樹脩闊駢立，因風落花，稀雪點點，大覺幽曠絕異，村莊小屋粧點飛花也。從亭後，偕入園，時花已

盡盡成青林, 少坐八面亭址石. 玉清洞以無水不見. 暮還.

1786년 4월 5일, 유만주는 내종형 김이홍(金履弘, 1746~1792)과 함께 석양루를 찾아 이 집의 화려했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여기 언급된 ‘역적인 종실 사람 정(楨)과 남(柟)’은 바로 석양루의 처음 주인이었던 인평대군의 아들 이정(李楨, 1641~1680)과 이남(李柟, ?~ 1680)이다. 이들은 각각 복창군(福昌君)과 복선군(福善君)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원래 인평대군은 복녕군(福寧君),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福平君) 등 모두 4형제를 두었는데, 그 중 복녕군이 일찍 사망한바 그 아래의 3형제를 세상에 서는 ‘삼복’(三福)이라 불렀다. 경신환국(庚申換局)의 중요한 국면 가운데 하나인 ‘삼복의 옥(獄)’이 바로 이들 삼형제 가운데 복선군을 왕위계승자로 추대한다는 무고와 관련되어 진행되었고, 이 삼형제는 역모죄에 몰려 유배되었다가 1680년에 사사되기에 이른다. 이 이후 남인(南人)은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된다.

인용문에서는 이들 형제가 역적으로 죽은 후 그들의 거처를 허물고 그 자리에 연못을 파서 그 흔적까지 말소하려 했던 정치적 반대파-서인(西人) 일각으로 추정되는-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30대 중반에 요절한 인평대군의 뒤를 이어 석양루의 주인이 되었을 법한 그의 아들들이 정쟁에 휘말려 죽임을 당한 것이 유만주의 당시에 그 집이 주인 없이 비어 있는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즉 1680년 이래 오랜 시간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양루에는 경신환국(庚申換局)과 삼복의 변으로 일궈지는 전사(前史)가 있었다 하겠다.

4) 1787년의 기록

1787년 2월 21일.

일찍 동쪽으로 들어가 벽송정(碧松亭: 성군관에 있던 정자)에 올라갔다. 이 재학(李在學)이 중춘(仲春)의 획시(畫試)를 주관했다. 과제는 ‘태평시대의 사람

은 어질다'로 시를 짓는 것이었다. '장'(壯)을 운자(韻字)로 썼다. 들으니 이 과정은 정부(政府)의 신령(新命)이라 한다. 다시 벽송정에서 방향을 바꾸어 높은 데로 올라갔다. 포동(浦洞 : 깃골. 종로구 명륜1가동)의 정원을 바라보니 꽃나무 한 그루가 유독 만개한 꽃송이로 가득했다. 흰 기운이 도는 분홍색인 걸 보니 살구꽃인듯 싶다. 산빛은 환하게 탁 트여 있고 겹겹의 기와지붕은 정결하며 흐르는 듯 했으니 끝내 남촌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언덕 골짜기의 움푹 들어간 곳에도 초가집들이 붙어 있는데, 반촌 사람 중 가난한 이들이 사는 곳이라. 고요히 솔바람 소리를 들었다. 이 어찌 인간 세상의 관현악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라. 얻고 잃는 데 얽매어 꿈에서 깨지 못하며, 슬퍼하고 기뻐하고 괴로워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비록 작디작은 초가집에 사는 사람에게도 분디 있는 일이다. 인생이라는 게 그저 우습다.

계성사(啓聖祠)에서 돌아내려가다 갑자기 이임(履任 : 임이주)을 마주쳤다. (….) 다시 포동(浦洞) 정원의 꽃들을 보다가 마침내 광례교를 돌아보고 경침 밖에 새로 만든 연못을 보았다. 연못물이 가득 차 있고 수양버들을 사방에 둘러 심어 놓았다. 연못 안의 섬에는 조그만 제철의 꽃나무가 혼자서 붉은 꽃송이를 달고 있었다. 발걸음으로 연못의 면적을 재어 보았더니 백 보가 채 못 되니 역시 매우 좁은 것이다. 가면서 버들빛을 보았다. 날이 저물어 석양루의 정원을 향했다. 영과정에 오르니 창문과 난간이 무너지고 부서진 정도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 더욱 심했다. 다시 하늘이 흐리고 비가 오려 했다. 나와서 이임(履任)을 만났다. 드디어 함께 조양루 밖으로 가서 동쪽 연못을 돌아보았다. 그 연못의 넓기는 새로 만든 연못의 배나 된다. 다 저물어서 돌아왔다. 들으니 여중 진이의 증세는 귀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동촌(東村)의 꽃은 지금 며칠이 한창 때다. 그러나 남촌(南村)의 꽃소식은 아직 아득하다.

早東入登碧亭. 李在學設仲春畫試. 太平之人仁賦. 用壯. 聞是政府新令云. 又從碧亭而轉上高處, 望見浦園. 時花一本特闌, 又有繁花, 色以淡紅微白, 想是杏花也. 嶽色明昌, 層瓦韶朗潔淨, 竟非南里可及也. 岡壑凹處, 亦并寄着草舍, 想泮人之窮者也. 靜聽松風, 是豈人世管絃可得彷彿哉? 得失夢夢悲歡苦樂, 雖小小蓬菴, 亦自有焉, 所謂人生直是可笑. 從啓聖祠而迤下, 忽值見履任. (….) 更迤賞浦園花. 遂迤見廣禮橋, 觀景寢外新池, 池水忒滿, 垂柳四圍, 島中小時花孤開

着紅. 推步池面, 不盈百, 蓋亦甚窄也. 行觀柳色, 日暮向夕陽園, 登映波亭. 毀窓頽欄, 更甚於前年. 時更天陰欲雨, 出遇履任, 遂偕之過朝陽樓, 外迤賞東池. 池之闊幾倍於新池. 迫昏而還, 聞眞婢症涉鬼怪. ○東花今數日, 當爲午會, 而南花, 則杳然.

1787년 2월 21일의 이 기록이 석양루를 언급한 마지막 대목에 해당된다. 이 날 역시 성균관에 가 획시(畫試)를 치르고 근처를 배회하며 봄의 경물을 응시하다가, 회로애락에 휘둘리는 인생이 몹시 가소로운 것이라는 생각에 문득 잠긴다. 마지막으로 가 본 석양루의 정원은 건물의 창문과 난간이 무너지고 부서져 완전히 폐가의 형상이다.

이로부터 석 달 후 유만주의 아들 구환(久煥, 1773~1787)이 병사(病死)하고, 유만주는 그 충격에 일기를 그만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 이듬해인 1788년 1월 29일에 유만주 자신도 병사하기에 이르는바 1787년 2월은 그가 겪은 마지막 봄이었다.

3. 기타 기록에 보이는 석양루 관련 언급

유만주와 교유가 있기도 했던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은 석양루에 대한 글을 쓴 바 있다. 그 글 「석양루기」(夕陽樓記)에는 우선 다음과 같이 석양루의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언급이 자세하다.

석양루는 인평대군의 옛 저택인데 효종대왕이 봉림대군일 적의 저택과 서로 마주하여 우뚝했다. 인평대군은 효종의 친동생으로 우애가 유독 지극했다. 효종은 즉위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의장과 호위병을 갖추어 이 저택에 거둥하였다. 이에 누대와 정원과 연못을 만들고 가꾸었으니 크고 화려하기가 나라 안에서 으뜸이었다. 정원에는 붉고 흰 매화와 살구나무와 수선화와 녹나무며 오동나무, 대나무, 소나무, 노송나무 등 몇천 가지를 심어 봄가을에 꽃 피고 잎이 질 때 금빛 날개와 푸른 날개의 나비와 갈색 잠자리며 비취빛 청동오리

와 금계(錦雞)와 비오리 같은 것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도 하고 물에서 헤엄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눈과 마음이 휘황하여 어릿어릿했다. 인평대군은 더욱이 손님을 좋아하여 당대의 사대부들로 그 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운자를 나눠 시를 짓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어깨끼리 부딪고 소매가 서로 닿을 정도로 북적였다. 수레와 말이 오가고 생황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날마다 마을에 들려왔다.⁴⁾

미루어보건대 남공철은 인평대군이 살았을 당시의 석양루에 대해 전문(傳聞)한 바가 상세했던 듯하다. 이어 그는 “나중에 변고를 만나 저택은 거의 탁지(度支 : 호조)에 적몰될 처지에 이르렀다가 겨우 면하였지만 석양루는 점점 허물어져 가고 심어 둔 화초와 나무들은 베어져 빨감으로 사용되었으며 떠돌이 거지와 가축들이 잡다히 몰려들어 거의 황폐한 곳이 되었다.”⁵⁾고 하여 이른바 삼복(三福)의 옥(獄) 이후 이 집이 주인 없이 버려지게 된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남공철은 비록 이 집이 황폐한 채 버려져 있었다고 했지만 다른 이의 언급에 따르자면 석양루를 찾아든 것은 떠돌이 거지와 가축들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유만주와 남공철의 동시대인인 윤기(尹禧, 1741~1826)의 회고에 따르자면 근방에 사는 사대부 젊은이들이 간혹 이 집에 모여 공부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어릴 적에 낙산 아래에 전세로 산 적이 있는데 그 곁에 인평대군의 석양루가 있었으니 대개 장안의 갑제였다. 그 바깥채는 궁륭이 깊고 너른데 주인이 버려두고 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에는 여러 벗들과 여기에 모여 과거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날이 저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갔다. 나는 거

4) 樓是麟坪大君舊第，與孝宗大王 鳳林潛邸，對門相峙。麟坪於孝宗爲親弟，友愛特至，及登寧，數具儀衛鹵簿幸第。於是治臺榭園池，鉅麗甲於國中。園植紅白梅杏水仙花楓楠桐竹松檜幾千種，方春秋花開葉脫時，金碧翅蚨蝶，褐色蜻蜓，翡翠青鴨，錦雞鸕鷀之屬，聚散游泳，心目炫耀。麟坪尤好客，一時士大夫造其門者，分韻命酒，肩摩袂接，車馬笙歌之聲，日聞於閭里。(『金陵集』卷12 「夕陽樓記」)

5) 後值變故，第幾籍入度支，僅以得免。樓浸以圯，花卉樹植，斧以爲薪，流丐豕畜，雜入羣聚，幾爲廢區。(『金陵集』卷12 「夕陽樓記」)

기가 시원하여 혼자 왔는데 여름이 지나도록 괴이한 일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중엔 들으니 그곳에는 도깨비가 난리를 부려서 사람들이 감히 혼자 머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다.⁶⁾

여기서 또 하나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집에 도깨비가 출몰한다는 말이 있어 사람들이 밤에 머물기를 기피했다는 점이다. 이에, 단순히 번고를 겪은 후 주인 될 만한 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물(鬼物)이 깃들었기에 주인도 무서워 살지 못하고 버려 둔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귀신 붙은 집이라는 석양루의 평판과 관련해, 경신환국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좀더 가까운 시기를 살았던 인물의 전문(傳聞) 하나가 주목된다. 남태옹(南泰膺, 1687~1740)의 『청죽만록』(聽竹漫錄)에 실린 한 야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야담은 임형택 선생의 번역서인 『한문서사의 영토』에 「구사비(丘史婢) 득옥(得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다. 여기 따르면 석양루에 붙은 귀신은 이름답고 총명하며 원한에 사무친 여성으로, 득옥(得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나타난다. 득옥은 원래 기녀 출신으로 인평대군의 구사비가 되어 그 저택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는데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총명하여 인평대군의 신임을 받았고 중요한 가내사를 맡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인평대군의 처남 오정창(吳挺昌, 1634~1680)이 득옥을 마음에 두어 서로 좋아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인평대군의 아내는 남편이 공무로 집을 오래 비운 사이 득옥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는 결박하여 장살(杖殺)했다. 그리고는 결박도 풀지 않은 득옥의 시신을 집안의 연못에 던져 버렸다. 인평대군이 돌아온 뒤 아무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으나 득옥은 귀신이 되어 나타나 자신의 소재를 말했고, 과연 연못에서 죽을 때 그대로 썩지도 않은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이후 득옥은 계속하여 인평대군에게 나타나서 인평대군의 아이들을 하나씩 거명하며 곧 초상이 날 것이라 했고, 그 말대로 아이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그리고

6) 余少時嘗僦居駱山之下，傍有麟坪大君 夕陽樓，蓋長安甲第也。其外舍穹窿深廣，主人廢而不處，故夏月與諸友會於此，治功令業，至暮則衆皆散去。余以其涼爽獨宿，以過夏而絕無怪異。後聞其處鬼魅擾亂，人不敢獨處云。(『無名子集』 文藁 12冊)

1680년에는 득옥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나더니 인평대군의 집안은
떨문의 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 역시 1680년의 경신환국 및
남인(南人)의 몰락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깊이 연루된 서사로서, 당시 석양루
라는 공간에 대한 민간의 감수성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